



투표 인증샷 '스마일' 9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한 가족이 광주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투표행렬

굵은 빔방울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광주·전남 지역 투표소 곳곳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로 온종일 분주했다. 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자녀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가족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나온 유권자들까지 각자 지지 후보는 달라도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1투표소에는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중호씨(63)는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신분증을 잃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오늘은 신분증을 잘 챙겨 나와 투표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사전투표 때 신분증이 없어 투표를 못했던 유권자가 많았다는 얘길 들었다"며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문이 어려운데 일수록 투표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밝혔다.

소 관계자의 준비 미흡으로 투표소 안에서 5분여 간이나 대기하는 웃지 못할 일을 당했다. 강 모씨(23·여)는 9일 오전 8시 23분께 광주 서구 상무2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마련된 상무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으려 했지만 투표소 관계자들이 미처 투표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강씨는 "오후에 출근하는 대신 투표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투표소 관계자 측에서 처음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투표소 관계자는 "사전투표 때는 준비했었는데 본 투표 때도 투표확인증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저는 투표 못해요?"**  
○...광주 남구 2투표소에 생애 첫 투표를 하러 나온 장준혁씨(20)는 투표사무원에게 등재번호를 확인하는 도중 자신의 이름이 없자 한참을 대기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광주로 주소지를 옮겨 지난달 24일에 전입신고를 마친 장씨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선거 사무원의 말을 듣고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것. 선거 관계자는 "4월 12일 이전에 전입신고 절차를 마쳐야 주소지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최대한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한 투표소를 찾아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단위 투표행렬 이어져**  
○...광주 광산구 수원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수원동 제9투표소에는 봄비를 맞으며 투표소를 찾은 가족단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일 오전 9시에 수원동 제9투표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가 많아 아침부터 북적였다. 대통령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을 수 차례 볼 수 있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김하나씨(22)는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라 부모님과 꼭 함께 오고 싶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오니 더 뜻 깊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40대 부부, 인증샷 제지당해**  
○...투표소 인증샷 문제로 40대 부부와 선거 사무원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 모씨(46) 부부는 9일 오전 7시 42분께 광주 서구 상무2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마련된 상무2동 제2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소가 보이게 인증샷을 찍으려다 선거 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 이씨 부부는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투표소 관계자들이 막는 바람에 투표소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투표소 관계자는 "투표소 내부가 보이는 인증샷은 찍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오늘은 신분증 잘 챙겨왔어요"**  
○...광주 동구 학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학동 제

**"투표확인증 없나요?"**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으려던 20대가 투표

## 이색 투표자

###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주길"

휠체어 타고 투표 김병완씨

"다음 대통령은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상무2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상무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김병완씨(74·뇌병변2급). 김씨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휠체어를 이끌고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를 마친 김병완씨는 "내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기여하고 싶었다"며 "내 한 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부양의무제는 수급대상자의 부모나 자식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면



토로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생활고로 힘겹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장애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이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이 한 명 있는데 시력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김중찬 기자

### "청년들, 투표에 보다 적극 참여해야"

생애 첫 대선 투표 김민성씨

"투표에 관심이 없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봉선 2투표소에서 생애 첫 대선 투표를 마친 김민성씨(22). 봉선동 이마트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이날 당직근무를 마치고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표를 던졌다.

교박 날을 새 몸은 피곤하지만 투표를 마치고 나온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뿌듯함에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김씨는 이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이후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본 김씨는 10여일 전 집에 우편으로 배달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정책 등을 꼼꼼히 살폈다.

5월에 걸친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시청한 김



늘었다는 김씨는 젊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씨는 "정치인들이 젊은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청년 취업문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용현 기자

### "성실하고 진실한 대통령 뽑아야"

학동 최장기 거주자 문광남씨

"차기 대통령은 거짓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국정 운영에 힘쓰길 바란다"

문광남 할머니(88)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학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학동 제1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밝은 얼굴로 투표를 마치고 나온 문 할머니는 "대 선거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남녀노소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할머니는 "무릎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투표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느린 걸음이지만 권철히 투표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도 성실하고 진실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형동 기자

**광주 최대 규모 최고 시설 최고 압제 상무지구의 랜드마크!!**

**임대문의**

6층 95평	8층 40평
16층 60평	19층 60평
23층 107평 / 스카이라운지	

병원 / 일반사무실 / 학원 / 헬스클럽 등

상가, 사무실, 병원 임대문의 062-385-0093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함께하는  
고객중심의 건강검진기관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화 예약 062) 363-4040  
인터넷 예약 gwangju.kahp.or.kr

■ 검진시간 07:30~17:00 [토요일 정상근무 12:00까지]